

2. 지역과 지역 자원 소개

기술인과 고객을 연결하는 복원 기획자

- 종로 일대에서 시계, 필름 카메라, 안경 등 다양한 중고품을 복원하고 판매하는 복원 기획자 (나까마, 고물상인, 업자, 노점상인)들은, 물건을 직접 고치지는 않지만 수 가지 이상의 기술 분야가 요구되는 수리의 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상품화 및 판매까지 책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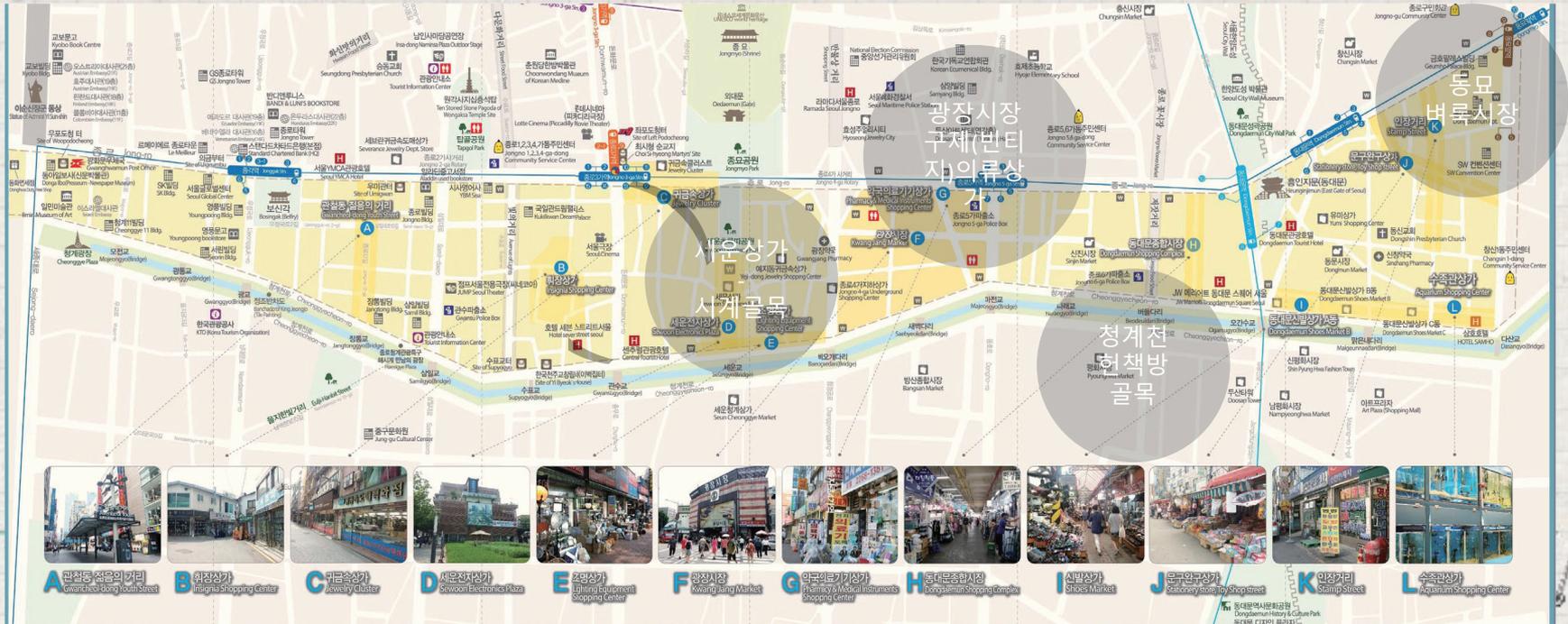
청계천의 고물상 (최인기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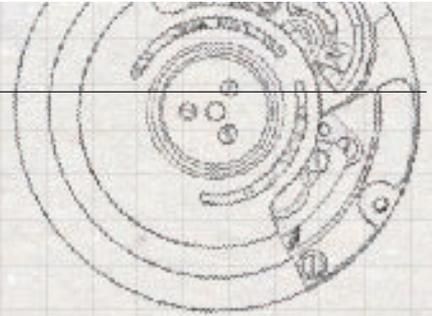


시계골목의 노점상인 (이종구 작가)

2. 지역과 지역 자원 소개

청계천을 따라 구성된 종로 일대의 복원 산업 생태계-인프라





2. 지역과 지역 자원 소개

지역의 변화를 마주하는 세운4구역(시계골목) 노점 상인들



노점 상인들은 시계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계골목의 전문 분야별 기술자들과 손님들을 연결해줍니다. 배터리의 교체 등 간단한 작업을 손님이 보는 바로 앞, 즉석에서 처리하여 시계골목의 운치를 더합니다.



노점

현진사 Hyun-jin Sa

노점 경력 30년을 자랑합니다. 배터리 교체, 종크 놀이기와 줄이기 등 간단한 수리를 합니다. 종크 번타지 시계를 판매합니다.



노점

한경호 Kyung-ho Han

전쟁중에 이북인으로 10대 때부터 정계천 인근에서 노점 장사를 했습니다. 1970년부터 시계골목에 자리를 잡았습



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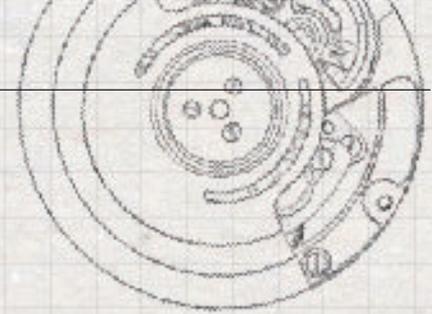
전세진 Se-jin Jeon

한국전쟁 이후 이 곳에서 사과상자에 고무줄을 매달아 시계 노점 장사를 하던 아버지의 가게를 2대째 운영합니다. 빈티



2. 지역과 지역 자원 소개

지역의 변화를 마주하는 세운4구역(시계골목) 노점 상인들



“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세운상가에 작업 공간이 생기면 좋겠지.

우리는 나이가 들어 인터넷을 모르니까, 아무리 젊은 친구들이 시계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연결되기가 어렵잖아. 길어야 5년 10년 일하고 은퇴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온라인이든 뭐든 팔려야 제게 맞는 주인을 만나지.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이용하고, 금고도 이용하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고맙지.

